

## 캠퍼스 안 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 “동물과 평화로운 공존은 대학의 가치”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 발길이 끊긴 캠퍼스를 거닐며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 ‘쿠캣’과 ‘보금자리’의 학생들입니다. 2018년 우리 학교는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함께 두 동아리를 지원하며 협력관계를 맺고, 길고양이 돌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원 사업은 모종의 이유로 갑작스레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학생들만 덩그러니 남아 캠퍼스 내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지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학교가 주도했던 길고양이 돌봄 사업은 어떻게 종료된 것인지, 고양이를 돌보는 학생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봉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인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이전까지 대학이 직접 나서 길고양이 돌봄 사업에 뛰어든 사례는 없었습니다. 고양이의 개체 수가 늘어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학교 구성원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민원 때문에 학교 측에서 길고양이 돌봄 행위를 저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예로 2017년 7월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의 고양이 쉼터 조성 활동과, 동물보호 단체의 학교 내 진입을 모두 저지해 학생들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그러던 2018년 6월, 우리학교는 유기동물 보호단체인 ‘카라’,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인 ‘쿠캣’, ‘보금자리’와 협력 관계를 구성하여 ‘생명 공감 캠퍼스’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가까운 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탐색을 시작으로, 생명에 대한 공감을 키워나가는 취지였습니다. 고양이 개체 수 파악, 급식소 설치, 중성화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쿠캣’과 ‘보금자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캠퍼스의 고양이 개체 수는 서울캠퍼스 50마리, 국제캠퍼스 30마리 정도였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중성화 수술을 거친 후 다시 방사되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우리학교가 길고양이 돌봄 사업에 참여한 최초 사례로 보도되었고, 취지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얻었지요.

우리학교가 최초로 길고양이 돌봄 사업에 손을 내민 것을 기점으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대학들 역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업에 협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길고양이 돌봄 사업의 중심에는 고양이를 중성화하여 다시 풀어주는 활동인 ‘TNR(Trap-Neuter-



동아리 쿠캣이 돌보고 있는 고양이 ‘팡이’, ‘퓨마’, ‘연지’, ‘몽이’의 사진

(사진=쿠캣 제공)

Return)’이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는 개체 수를 늘리지 않고, 발정기에 이르지 않아 울음소리도 덜 내게 됩니다. 수의사로 활동하며 우리대학의 ‘반려동물과 동물권’ 수업을 맡고 있기도 한 박종무 교수는 “TNR은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줄이고 개체 수를 조절하는,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길고양이 돌봄 사업에 대한 기존의 우려는 대부분 오해에 가까웠던 것이지요. 그렇게 사유지라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배척하던 캠퍼스는 생명에 대한 공감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 민원 줄이려 시작된 협력 지역사회 민원으로 도리어 중단

하지만 현재, 학교와 ‘카라’, 그리고 고양이 돌봄 동아리의 협력 관계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2019년 12월부로 학교 측에선 일체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얻어 겨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 관계의 담당 부서였던 글로벌봉사팀은, 협력 관계가 종료된 이유에 대해 “고양이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사업 종료 불가 피했다”며 “현재로서는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정도의 독려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구역은 캠퍼스 내로 한정되었지만,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맞닿은 곳에서도 사업이 진행돼 주변의 불만이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 설명에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사업의 취지를 곧 사업 중단의 이유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글로벌봉사팀은 2018년 사업 안내문을 통해 “생명 존중 및 생명 공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TNR 사업을 통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정하고 민원을 줄이겠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학교는 ‘고양이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을 착안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학교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사업을 접겠다고 한 것이지요. 대학가의 선두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우리 학교가 도리어 대표적인 오해를 대변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카라’는 2019년 캠퍼스 내 고양이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대학의 노력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소를 운영한 뒤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일은 크게 줄어들었고, 개체 수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의 불만도 수그러든 것이지요. TNR 사업을 통해 고양

이에 대한 인식이 점차 캠퍼스에서 ‘쫓아낼’ 대상이 아닌 캠퍼스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 길고양이 돌봄 사업이 갖는 의미 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태도

우리학교가 ‘민원’을 근거로 이 사업에서 물러선 것은 단순히 ‘사업의 종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캠퍼스라는 공간이 표방하는 가치, 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지요. 박종무 교수는 “캠퍼스가 사람들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은 착각에 가깝다”며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도 그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나 생명에 공감하는 정도에 따라 대학의 가치나 교육관이 드러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쿠캣’의 한 동아리원도 “쿠캣의 활동은 단순히 고양이의 복지나 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내 관계자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줄여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주체가 손잡고 시작했던 이 사업, 길고양이와 학생들만 덩그러니 남은 이 현장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고양이는 많게는 1년에 2~3회 임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개체 수가 늘어나면 고양이에게도 힘든 환경이 되고, 주민들의 민원

도 증가합니다. 고양이와 사람이 도시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개체 수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TNR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로 TNR을 실시했고, 그 결과로 2014년 25만 마리였던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19년 11만 마리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 캠퍼스는 TNR 사각지대 생명에 공감하는 공간 돼야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아무리 TNR을 열심히 시행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다면 계속해서 고양이의 개체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각지대 중 하나가 대학 캠퍼스입니다. 캠퍼스에서 생식 가능한 고양이가 번식하고, 다시 지역사회로 퍼져 나간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대학과 구성원들이 고양이와의 공존을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입니다.

박종무 교수는 학생들의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습니다. 그는 “도시가 사람만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동물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가까운 동물부터 돌보고, 공존을 위해 봉사하는 이 활동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구성원들의 후원을 모아, 매일 학교에 나와 동물을 돌보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그가 말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봉사팀이 동아리의 학생들에게 여전히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곧 그 활동의 가치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음을 뜻하겠지요.

물론 우리대학을 비롯한 대학가 전반이 지역사회의 민원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TNR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입증되었지만, 주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사업에 공감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대학은 지성인의 요람으로서, 구성원들은 미래의 시민으로서 ‘생명 공감’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한 태도가 곧 우리가 주변 환경에 대해 갖는 인식을 말해줍니다. 고양이를 돌보는 학생들의 작은 실천이 큰 가치를 지닌 까닭입니다.